

People & Life

우리밀 광역클러스터사업단장 최강은 씨

“광주서 나는 우리밀 많이 드세요”

“조금 비싸지만 우리밀로 만든 칼국수와 만두 한 번 드셔보시면 또 찾으실 겁니다.”

지난 8월 광주시 서구 차평동에 우리밀 칼국수 전문점인 ‘우리밀로(路) 칼국수 밀고(GO) 밀고(GO)’ 1호점을 연 최강은(47) 우리밀광역클러스터사업단장은 요즘 점심시간에 불러드는 손님들을 안내하느라 정신이 없다. 주로 여성, 특히 주부와 노인층에게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우리밀 식품은 입소문이 퍼지면서 예초 예상했던 매출의 20~30%를 초과하고 있다.

“지난 1984년 우리밀에 대한 정부 수매가 중단되면서 농민들과 함께 머리를 감싸줘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고민 끝에 7년 만인 1991년에 우리밀 운동본부를 만들었지만, 소수만이 참

여하고 소수만이 맛볼 수 있었죠.”

하지만, 최 단장을 비롯한 광산구 밀 재배농민들의 노력으로 우리밀 재배를 꾸준히 해온 덕에 어느덧 광역시인 광주가 우리밀 생산량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됐다. 그 덕에 광주시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국비 32억원 등 72억원이 투입되는 우리밀광역클러스터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우리밀 메카’로 성장하고 있다.

“아직 멀었어요. 지난해 외국 밀 수입량이 350만이고, 이 중 식용이 200만인데, 우리 밀은 2만t 생산되는 것이 고작이에요. 20년간 노력해서 1%를 차지한 거죠.”

최 단장은 2012년부터 보리수매가 중단될 경우 밀 재배 농가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며, 이 기

회에 우리밀 재분공장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밀 전용 재분공장이 없다 보니 종자가 섞여 재분하기도 하는 등 우수한 질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몸에 좋은 우리밀을 누구나 손쉽게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밀 뿐만 아니라 모든 식재료를 국내산으로 쓰고 있는 최 단장은 “우리밀 식품은 수입 밀 식품보다 조금 비싸지만 건강에는 몇 십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지역소비자들이 우리밀을 적극적으로 소비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시 ‘목포의 눈물’ 수필 ‘물두멍’ 등 목포문학상 당선작 확정



‘제2회 목포문학상’ 당선작이 확정됐다.

27일 목포시에 따르면 단편소설 부문 ‘벌레 먹은 편지’(윤나리·수원시), 시 부문 ‘목포의 눈물’(이인주·대구시), 수필 부문 ‘물두멍’(송옥선·고양시), 동화 부문 ‘어디갈래?’(김미애·광주시)가 목포문학상 당선작에 선정됐다. 희곡 부문은 당선작이 없어 가작으로 ‘울모래등’(김성희·안도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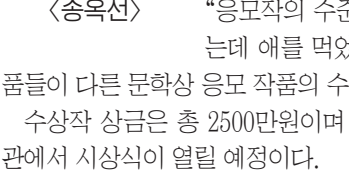


이 뽑혔다.

지난 9월 30일 작품 공모를 마감한 목포문학상에는 작년보다 48%가 증가한 620명이 3520편을 응모했다.



목포문학상 심사위원장 천승세씨는 “응모자의 수준이 높아 당선작을 선정하는데 애를 먹었다”면서 “본심에 오른 작품들이 다른 문학상 응모 작품의 수준을 능가했다”고 말했다.



수상작 상금은 총 2500만원이며 오는 29일 오후 목포문화관에서 시상식이 열릴 예정이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kwangju.co.kr

광주 남구 ‘가족사랑 태교콘서트’ 개최



광주시 남구는 27일 봉선동 남구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임산부 및 가족과 주민 등 40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사랑, 그리고 280일간의 설레임’ 가족사랑 태교콘서트를 개최했다.

태교콘서트 1부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양유진과 피아니스트 제갈소망, 첼리스트 김소연이 현악 3중주 공연을, 2부에서는 베이스 합석현이 ‘사랑의 묘약’, ‘맨 오브 라 만차’ 등 팝페라 공연을, 3부에서는 연출가 김학민이 오페라 ‘오르페오’에 대한 클래식 해설을 각각 선보였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28년간 교화활동 허부경씨 ‘국민훈장 동백장’

“사랑의 힘으로 재소자들에 대한 교화에 더욱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8년간 전국의 교도소를 찾아다니며 교화활동을 벌여온 허부경(59) 광주지방법정형 교정위원 연합회장, 허 회장은 전국 47개 교도소에서 수행자들을 교화해온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 수상자로 선정됐다.

허 회장은 지난 1982년 광주중앙교회에서 전도활동을 하던 중 문득 ‘재소자들이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사회에서 진 죄로 인해 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들의 황폐한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후 허 회장은 광주·순천·목포·장흥·전주·군산교도소 등 광주, 전남·북을 시작으로 전국의 교도소에서 설교활동을 시작했다. 현재는 매달 정기적으로 교화활동을 하다보니 월 15회 이상 교도소를 찾고 있다. 수행자들에게 대한 애정과 관심에서 출발한 교화활동이 생활의 전부가 된 것이다.

허 회장은 “법원장을 지낸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려서 때부터 수행자들을 지켜보며 ‘어떤 방법으로든 도움을 주고 싶었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며 “열심히 교



화활동을 하다보니 사랑의 큰 힘을 다시 한 번 실감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화활동의 보람이 큰 만큼 어려움도 많았다. 주부의 몸으로 한 달에 절반 가량을 의지에서 보내야 했기 때문이다. 또 잦은 장거리 이동 속에 크고 작은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허 회장은 28일 오전 11시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리는 ‘제65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는다. 또 이날 행사에서는 김춘오 광주교도소 보안과장이 대통령표창을 수상한다.

/최경호기자 choice@

구조생물학 연구센터 개소

광주 과기원

광주과학기술원이 27일 오후 2009년도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토마스 스타이츠(Thomas A. Steitz)교수를 센터



〈토마스 스타이츠〉

‘구조생물학자로서 걸어온 길:카복시펩티다제부터 리보솜까지’라는 주제로 특별강연회를 개최했다.

스타이츠 교수는 리보솜 거대복합체의 삼차구조를 밝혀 단백질 합성과정의 구조·기능관계를 규명하였고, 이 결과를 활용하여 새로운 항생제 개발에 기여하게 된 공로로 영국 MRC연구소의 라마 크리쉬난교수와 이스라엘 와이즈만연구소의 요나스교수와 함께 2009년도 노벨 화학상을 공동 수상하였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김동호·강수연씨 등 ‘자랑스런 영화인상’

김동호 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등이 제48회 영화의 날 기념식에서 자랑스러운 영화인상을 수상했다.

27일 오후 서울 하얏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배우 박중훈, 심해진, 설경구 등 4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기념식에서는 김 전 집행위원장을 비롯, 정창화 감독, 황기성 전 서울영상위원회 위원장, 배우 강수연은 자랑스런 영화인상을 수상했고 채윤희 여성영화인협회 회장, 정성조 음악감독, 성우 고은정, 영화평론가 김두호는 공로상을 받았다.



〈김동호〉 〈강수연〉

영화의 날은 1919년 10월 27일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 ‘의리적(義理的) 구토(仇討)’가 단성사에서 상영된 것을 기념해 1962년 제정됐다.

/연합뉴스

이외수 동생 이창훈씨

SBS CNBC 앵커 데뷔

소설가 이외수의 동생인 이창훈 푸르덴셜 이사가 경제전문 케이블 채널 SBS CNBC의 앵커로 나선다.

SBS CNBC는 이창훈 이사가 다음 달 1일부터 매일 오전 10시 방송되는 ‘경제



〈이창훈〉

투데이’에서 박세애 앵커와 함께 진행을 맡았다고 27일 밝혔다.

푸르덴셜 자산운용 사장을 역임한 이창훈씨는 ‘경제투데이’에서 경제전문가로서 노하우를 살려 증시 상황을 분석하고 투자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여수 동백원, 포스코 봉사단과 ‘추억여행’



장애인 시설 여수 동백원(원장 김영화)은 곡성 기차마을, 순천 강천산, 함양 상림숲에서 포스코 및 협력업체 직원 자원봉사자와 함께 ‘가을 추억 만들기 여행’ 행사를 개최했다.

〈여수 동백원 제공〉

동신여고 사랑나눔회 소속도에 위문품



동신여고 사랑나눔회(대표학생 손준영, 조유영, 신주호) 회원 200여명은 최근 고창 소록도 아기사슴성당에 있는 한센인 80여명에 위문품을 전달하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동신여고 제공〉

광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업무 협약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상길)은 27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광주 지역 SW테스트 수준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제공〉

동신대 간호학과 나이팅게일 선서식



동신대학교 간호학과(학과장 류세양)는 27일 오후 동신대 국제회의장에서 학술세미나 및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개최했다.

〈동신대 제공〉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화측

- ▲최흥열·박영자씨 차남 규철(♂) 경동계약 광주·전남 서부지점장)군 김상배·김숙자씨 삼녀 선정(목포 미즈아아병원 간호사)양=30일(토) 오전 11시 40분 상무리츠컨벤션웨딩홀 2층(차스민홀) 017-602-2867.
- ▲안종국(풍전약품 감사)·박광희씨 장남 영진(의사파립)군 박동구(일광건설 대표)·안해순씨 장녀 미진(디자이너)양=30일(토) 낮 12시 서울 노블레스 웨딩컨벤션 18층(노블레스홀)
- ▲이승기·모계순씨 장남 의형(회사원)군 임병남(서강정보대 교수)·이윤남씨 장녀 은주(회사원)양=30일(토) 오후 5시 30분 서울 중구 라무레 4층(무아르홀)
- ▲권혁용·최봉순씨 차남 순명군

정희구(광주보건대 학생과장)·이윤자씨 장녀 설양=30일(토) 오후 1시 30분 광주서남교회(백운동 서광여중입구 언덕) 062-365-3131.

▲김경수·구갑순씨 장남 성덕군 안병희(전 ㈜진로상무)·정순이(광주시 미술협회 회장)씨 장녀 경미양=31일(일) 오후 1시 30분 조선컨벤션 웨딩홀 3층(컨벤션홀)

▲손은채·임향자씨 장남 성주군 이병남(전 광주일보)·공양순씨 장녀 선경양=31일(일) 오전 11시 웨딩의 전당 금호 30층(아도니스홀)

▲최수용(광주시의사회 명예회장)·류효수씨 차남 창호군 박일양·임현숙씨 장녀 지현양=11월 7일(일) 낮 12시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 3층(그랜드 볼룸) 신랑측 피로연 : 29일(금) 오후 5시 상록회관 F층(장미홀)

향우회

▲재광보성읍 향우회(회장 김선주) 개최=28일(목) 오후 6시 흥백회관. 062-228-3882.

▲동래정씨 광주·전남 종친회(회장 정현영) 세거지 임항조 침배순례=30일(토) 오전 8시 30분 광주상록회관 앞 출발. 011-9615-8567.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시민기자아카데미 개강 상담(나도 기자가 되고 싶다)=11월 20일(토)~28일(일) 유동국민연금 4층 한국시민기자협회. 062-527-0009.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

종친회

▲동래정씨 광주·전남 종친회(회장 정현영) 세거지 임항조 침배순례=30일(토) 오전 8시 30분 광주상록회관 앞 출발. 011-9615-8567.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시민기자아카데미 개강 상담(나도 기자가 되고 싶다)=11월 20일(토)~28일(일) 유동국민연금 4층 한국시민기자협회. 062-527-0009.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

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출 및 위기 청소년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수시 입소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북부비만, 피부관리 셀프무료 체험=광주시 북구 우산동 말바우시 갤러리 3층 내비엘 유산센터. 062-261-5875, 011-9614-3348.

▲대한노인회 광주 취업지원센터 일자리 안내=광주시에 거주하는 심신 건강한 60세 이상 노인. 주민등록증 지참, 동구센터 062-223-8324, 서구센터 062-431-4529, 남구센터 062-432-0947, 북구센터 062-433-6050, 광산구센터 062-942-0204.

▲광주 여성의 전화 무료 상담 및 법률·의료비 지원=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직장내 성차별, 이주여성문제 등 상담. 062-363-0442~3.

▲광주종합사회복지관 이동가족

상담센터 무료상담=아동심리적 발달·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미술치료, 언어치료, 자녀양육상담. 062-264-4370, 5308.

▲오지종합사회복지관 이주여성 한국사회 적응력 향상 무료 교육=요가, 웃음교육, 푸드아트테라피, 매주 월·수요일 오전, 선착순 20명. 062-267-3700.

▲자비선원 명상 무료 지도=학생, 주부, 직장인, 마음의 평화를 원하시는 분. 062-228-7701.

▲국기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장애차별 상담=국번 없이 1331, 우편방문·광주시 동구 재봉로 광주은행 본점 6층.

▲한국실버복지회 생활법을 무료 상담=내용증명, 고소장, 호적정리, 가정 고민, 실버 결혼, 이발, 주례 서주기, 묘자리 바꾸기 등(실버에 한함). 062-365-8228.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무료 상담=보호가 필요한 아동 일시보호 상담. 국내 입양 상담. 미혼모 상담 및 시설 입소 안내. 062-222-1095.

부음

▲임애덕씨 별세 송영중(전남도 부이사관·국방대 파견)·동석(번호사)씨 모친상=발인 28일(목) 보성 별교중앙장례식장. 061-857-3000.

謹 상가 故人의 冥福을 빚니다 弔

故김세광 님(남/62세) 子/子婦: 김상익, 태근 未亡人: 박임자 호실101호 • 발인: 10월29일 • 장지: 영락공원	故김명심 님(여/52세) 子/子婦: 최영호, 명수 女/ 婿: 최명희 / 김대건 호실102호 • 발인: 10월29일 • 장지: 영락공원
故조영철 님(남/93세) 子/子婦: 조창근 / 이인옥, 경근 / 이순심 女/ 婿: 조문희 / 박하진, 수희 / 김찬영 인선 / 송인성 호실: 401호 • 발인: 10월29일 • 장지: 영락공원	故박충연 님(남/68세) 子 : 박민중 未亡人: 김삼순 호실: 402호 • 발인: 10월29일 • 장지: 보성 광백 선영

孝 金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

謹 故人의 冥福을 빚니다 弔

▲안창현·충현·철현·국현 씨 모친상 흥순봉 09시00분 장지: 영락공원 연락처: 250-4409
 ▲최모상 발인: 10월28일(목) 08시00분
 ▲정홍선·정옥 씨 부친상 이재준·송우현·임인섭 씨 부부상 발인: 10월29일(금) 08시30분 장지: 담양남면 연락처: 250-4406

그린장례식장 24시간 대기 / (062)250-4455